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인터넷) 2026. 4. 5.(일) 11:00

(지면) 2026. 4. 6.(월) 조간

배포 2026. 4. 3.(금) 오후

K-선박기자재 수출 지원으로 해외시장 경쟁력 높인다

- 4. 6.~4. 21., 'K-친환경·안전설비 수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선박기자재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K-친환경·안전설비 수출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4월 6일(월)부터 4월 21일(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조선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선박기자재 산업은 해외 선주의 외국산 장비 선호, 중국 등 경쟁국의 저가 공세, 중소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수출 제약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K-친환경·안전설비 수출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사전컨설팅, ▲해외인증 및 인·허가, ▲해외 박람회 참가, ▲해외 마케팅 등을 기업 수요에 맞추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수출 경험이 없는 기업 또는 수출시장 확대를 희망하는 선박기자재 기업이며, 총 2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당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선박기자재 기업은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누리집(www.komeri.re.kr)에서 신청 자격 및 절차 등을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담당자의 전자우편(kgreensafety@komeri.re.kr)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우리 중소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조선과 기자재 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산 기자재의 국제 표준화를 지원하여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선박기자재 기업이 수출 경험 부족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국제적인 기자재 기업을 육성하고, 조선강국을 넘어 ‘선박기자재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책임자	과 장	남창섭 (051-773-5830)
		담당자	사무관	지민철 (051-773-5831)



2026년 K-친환경·안전설비 수출지원사업 공고

[모집기간] 2026년 4월 6일 (월) ~ 4월 21일 (화) 17:00까지

정부혁신

지원대상

해외시장 신규 진출 및 수출 확대를 희망하는 친환경 기자재 등
선박 기자재 생산 기업

※ 수출실적 여부에 따라 『수출디딤돌 / 수출첫걸음』 구분 지원 *상세내용은 공고문 참조



지원사업 공고문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1.5억원** / 20개사 내외

지원항목

분류	지원내용	지원단가
필수 사전컨설팅	· 기자재·수출지역 맞춤형 수출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등	최대 20백만원
선택 인증, 인·허가	· 해외 인증 취득 / 시험·인허가 지원	최대 90백만원
선택 박람회 참가지원	· 해외 박람회·전시 관련 컨설팅 / 해외 전시 참가비 등 지원	최대 10백만원
선택 해외 마케팅	· 해외 바이어 발굴 / 홍보물 제작 / 해외 언론보도 지원 등	최대 20백만원
선택 국제표준 지원	· IMO 대응 / 국제표준 참여 지원	최대 20백만원

※ 선정기업별 지원항목 및 항목별 지원금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상세내용은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 송부 / (신청·접수처) kgreensafety@komeri.re.kr

* 단 경로 제출 불안정 / 접수마감일 17시까지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접수

문의처

이주혁 수석 | 051-417-7050 | leejh@komeri.re.kr



해양수산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Korea Marine Equipment Research Institute